

“부활 참인가?”

고린도전서 15:3-9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 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인은 자연스럽게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경험했다가 부활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요,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고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증명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이후에 연결되는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확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린도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그 부활 신앙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전 15:12-13)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만일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헛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부활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은, 육체는 추하게 여기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을 두고 지나치게 그 사건의 의미만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는 소홀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실제 부활 사건을 원색적으로 언급하기 보다, 그 의미만을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그럴 듯해보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신앙입니다. 물론 부활의 의미를 언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의 기초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속임수가 되는 것이며,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3-6)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며, '성경대로' 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 마디로 축약하면, '부활 신앙'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기독교

교 집단을 맹렬히 비난하며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자 그의 모든 생각과 사고,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부활 신앙을 그의 마음 속에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논리적인 이유들을 들어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지니라 하였나이다” (막 12:18-19)

율법에는 형이 자식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아이를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약 큰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 아래의 여러명의 동생들이 하나씩 형수와 결혼했지만, 금방 죽게 된다면, 나중에 부활해서 이 형수는 도대체 누구의 부인으로 부활하게 되겠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막 12:24-25)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었을 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새 육체, 즉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 냅니다.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의 피나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봄에 맞이합니다.
봄은 죽음과도 같은 황량한 겨울을 이겨내고 난 뒤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눈 덮힌 들판과 나무, 그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고 어떻게 파릇파릇 새싹이 돋도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부활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 11:25-26)

우리 주님은, 차디찬 종교적 윤리를 가르치시는 율법 교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분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신앙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 분의 다양한 사역들과 십자가 사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에 비해 '부활'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그것은 실제했던 '사실'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의미'입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봄과 같이 부활하고 회복되었으면 하는 삶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새롭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